

하나님께 맡길 때 약한데서 강함이...

총회목회대학원 2017학년도 제1학기 종강예배



목회대학원
임종달 목사

총회목회대학원(원장 임종달 목사) 2017학년도 제1학기 종강예배가 지난 6월 26일(월) 오전 11시 총회 목회대학원 성전에서 드려져 한 학기동안 수고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종강예배는 총회 목회대학원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목회대원 교수 최병진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증경총회장 이용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고후 12:7-10 말씀을 본문으로 '약한데서 강함'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복음전파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

갈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므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목회원생들을 축복했다.

총회 목회대학원 원수회장 이종현 전도사의 헌기도 후 사회자의 광고, 이용주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설교
이용주 목사



기도
최병진 목사



사회
윤기석 목사



66차 총회 고시위원회 1차 회의

2018년도 목사고시일정 확정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는 지난 6월 22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66차 총회 고시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2018년도 목사고시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서기 이석호 목사의 사회로 이문근 목사의 대표기도, 고시위원장 김인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잠 22: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들이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위원들을 축복했다.

끝으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목사고시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목사고시 서류접수 마감은 2017년 8월 31



일(목)까지이며 목사고시는 2018년 2월 5일(월), 6일(화) 양일간 치러진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본지 1074호 4면에 게재되는 목사고시 세부일정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 생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신 5:32,33)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립이나 중단을 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도(正道)를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는 도리,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에 계시된 바른 길, 정해진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첫째로, 믿음과 행함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 궤도 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에 혼돈을 초래하여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거나 미혹하는 이단에 이끌려 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행위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훌륭한 교인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무익합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기도도 잘하지만 대인 관계, 가정생활, 사회 생활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곤란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사실 진실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녕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열매가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겸비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에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 예로써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드린 실천적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상반되지 않으며 참된 믿음은 행위를 낳고, 참된 행위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들 행위의 원인과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낳는 믿음이여야 하고 또한 행함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율법과 은혜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며, 율법의 역할은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죄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해줍니다. 율법은 완전한 복종을, 계속적이고도 빠뜨림이 없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율법은 죄를 속하거나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항복하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 보인다는 가르침은 좌우로 치우친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행해도 상관없다는 가르침 역시 좌우로 치우친 교훈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행함과 믿음,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믿고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 www.ucts.org

AG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인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인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 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 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Who's Who는 117년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입니다. 저를 목사, 교수, 선교사로 소개하면서 산업 지도자로 선정되어 게재된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인명사전 후즈후에 본 교단 박진철 목사 등재

산업 지도자(Industry Leader)

■ 직업 : 담임목사, 교수, 선교사

■ 교육 :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박사 (2012)

■ 직업 :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2009-현재), 강남자랑회 주흥순복음교회 담임목사 (1999-현재) 청와대기독신우회, 지도목사 (2002-2013) 미국 안방경찰 특수수사관 (1999-2003)

■ 수상 내역 : 필리핀 적십자사 총재, 감사장 (2016),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최우수 석사 논문상 (1998)

■ 창조적인 업적 : 제5차 국제학술대회, 논문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선교전략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학회 (2015)

■ 성과 : 필리핀 사령 내 시립종합병원 1개, 고등학교 1개, 초등학교 1개, 시립 도서관 1개, 보건소 4개, 반군 원주민 지역과 태동 피해 지역에 주택 355채 건축 등 비정부기구, 정부 기관 및 아시아나 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파송된 선교사와 함께 소의 개척을 돕는데 헌신함

■ 가족 : 처 : 이영애 딸 : 박은혜 아들 : 박민석

Who's Who

[네이버 지식백과] 마르퀴즈 후즈 후 (시상식사전, 박문각)

미국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명단(BC)과 함께 세계 3대 세계인명사전을 발행하는 곳. 마르퀴즈후즈후사는 1899년에 문을 열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세계인명기관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후즈후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발간하고 있다. 후즈후인더월드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매년 세계적인 인물 5만여 명을 선정,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 세계인명사전이 부설 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재정산업부문 세계인명사전 (Who's Who in Finance and Industry, 2002-2003) 또는 과학기술부문 세계인명사전(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 등이다. 마르퀴즈 후즈 후에서 발행하는 인명사전은 100여 년의 오랜 역사와 철저하고 일관된 편집정책 등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도서관 등에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어 전문 인력정보 제공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교계 대표 연합, 쿼어 음란축제 강력 반대

2017 동성애 쿼어축제 반대 교계연합 기자회견 열어

한교연 등 교계 연합기관들이 지난 6월 29일(목) '동성애가 왜 말인가? 쿼어 음란축제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등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쿼어축제'를 개최해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 조장행위를 강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서울시의 부당한 허용승인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는 7월 15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제18회 동성애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이는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 옹호 행사이다. 서울광장과 길거리에서 대낮에 알몸을 드러내며 낯뜨거운 음란한 퍼레이드를 벌이는 모습을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보이고, 동성애 영화제



를 강행하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동성애는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 성문란 확산, 가정 및 인성 파괴 등의 심각한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축제를 강행하는 것은 건전한 국민들과 청소년들까지도 동성애 옹호자가 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인식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 국가기관으로서 처음으로 동성애 축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은 다수의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인권위는 243개 지자체에 동성애 옹호 내용이 포함된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하면서 차별금지제의 그럴싸한 포장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 왔지만, 이번 행사의 참여는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역사별로 건강한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건강한 성윤리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저의를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또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동성애 축제에 참여해 마치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를 강요하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제67주년 6.25 상기 연합예배 드려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 등 3개 단체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이장양 정섭 목사/이하 기개협) · (사)세계기독교교회 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이하 기교연) ·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이하 기교협) 등 3개 단체는 제67주년 6.25상기 연합예배를 지난 6월 22일(목) 서울시 종로구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드렸다.

이날 연합예배는 기교연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기교연 총재 김권현 목사의 기도, 예정함동예배 총무 정현 목사의 성경봉독, 기교협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시 23:1~6, 롬 8:5-9 말씀을 본문으로 한 '민족을 치유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다.

박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간구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한 많고 설움 많은 이 민족이 이제는 평안과 행복 속에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기적을 날아 우리도 살고 세계를 깨우는 복된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며 국권이 튼튼하고 건강하여 아무도 알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예배는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기교연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 3개 단체의 부국한 발전을 위하여 예정함동부총총회 부총회장 서경숙 목사, '복음으로 남북통일을 위하여' 예정개혁신교회총회 부총회장 정광웅 목사가 특별기도를 인도한 후 예정개혁신교회 총회장 강희준 목사의 인사와 광고, 기개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했다.

한기보협, 제67주년 6.25상기 기념예배

성경원형회복운동세미나도 함께 가져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지원철 목사, 상임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6월 22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제67주년 6.25상기 기념예배 및 성경원형회복운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공동회장 박정신 목사의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예정장신총회장 박수현 목사의 기도, 예신총무 박종원 목사의 성경봉독, 김재길 목사 · 손명자 강도사의 특별찬양, 함동근부총회장 송준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다.

송준길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나라가 비록 6.25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으나 짧은 기간 내에 이를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면서, "그러나 이 땅에서는 교회마저 세속화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우리



보수교단은 정체성을 바로 알고 성경적이나 정치적이냐를 잘 구별하여 보수교단은 성경적인 보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배는 계속해서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광영민 목사(예복 총회장)가 국가안정과 통일,

'혈의회와 회원교단 발전', '한국교회와 성경원형회복'을 위해 기도문을 인도했다. 이어 서경열 목사(법인인사의 헌금기도 대표회장) 지원철 목사의 인사말,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광고 후 상임회장한홍교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했다.

초대 민족 부흥사협의회의 설립예배

대표회장 안대성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초대총회(총회장 정요셉 목사)는 지난 6월 17일(토)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재 초대총신대학 연구원에서 초대민족부흥사협의회를 설립하

고 임원선출 및 감사예배를 드렸다. 설립예배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이주호 목사의 사회로 정시라 목사의 기도, 유시라 강도사, 이임순 목사의 특별찬양, 김요셉 목사의 담

전 4:3~7 말씀, 딤후 3:15~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경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의 설교, 김영웅 전도사의 봉헌송, 김요순 목사의 봉헌 기도에서 이임순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초대민족부흥사협의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후 초대총회 정요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계속해서 2부 설립행사는 사무총장 김창식 목사의 사회로 사회자 기도 후 요나스 선교사의 선교보고 임원선출 신임원 기도, 신임원 인사 축복송 류태원 목사의 축사, 최완수 목사의 격려사, 지요한 목사의 권면사, 사무총장 김창식 목사의 내빈소개로 진행했다.

새로 선출된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안대성 목사 △대표총재 정요셉 목사 △사무총장 김창식 목사 △회계장시라 목사 △총무 김요순 목사

엑소더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장총, 엑소더스 한반도 포럼 개최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 이하 한장총)는 지난 6월 22일(목) 비전70위원회 주관으로 엑소더스 한반도 포럼을 개최했다.

대표회장 채영남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현재의 한반도에서 통일, 건강한 대한민국으로의 엑소더스에 많은 교훈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것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엑소더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의지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오지용 목사(한장총 비전70사업단장)는 '엑소더스 한반도와 통일광장 사랑마'라는 제1발제에서 출애굽의 힘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출 8:19) 인데 이것이 '다지투스 데이'로 디지털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손인 성경을 문화 곳곳에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사회의 엑소더스의 방향임을 제시하였다.



김형석 박사(통일선교연합회 KUM 사무총장)는 제2발제에서 도산 안창호의 이상촌(理想村) 운동, 윤치호, 이승훈의 이상향(理想郷)운동의 역사적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교회와 엑소더스 사랑마를 건설에 대해 제안했다.

권혁만 PD(KBS 한국방송공사)는 '엑소더스 한반도와 바이블 루트 다큐영화 기획안'에 대한 발표하였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은 성경이 전래에 따른 것이며 그 길을 다큐멘터리로 기획한 것이다. 1866 미국산선 제너럴셔먼호 사건, 로버트 제임인 토마스

선교사와 최지랑의 만남, 존 로스와 이상훈의 만남, 일본의 쓰다센 박사와 이수정의 만남 등이 성경 전래의 길을 조명하여 앞으로의 우리의 나날 엑소더스의 길을 제시했다. 김수용 목사(한장총 부회장)는 '엑소더스 한반도와 한국교회 부흥운동과 기도'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대한민국 기도운동으로 교회의 부흥과 사회의 성장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방 전, 6.25 전후의 부흥운동과 기도, 한국의 새벽기도 부흥운동을 소개하며 한국교회 5천기도단 운동에 대하여 발표를 했다.

6.25 상기 나라의 안정을 위한 특별기도회

(사)한기지협,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기도의 불길을 이어가야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지난 6월 22일(목) 오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 2층 김마리아홀에서 6.25상기 67주년 나라의 안정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갖고 통일이 오는 그 날까지 없이 기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공동회장 정인도 목사의 사회로 서울기독대 명예총장 최윤권 목사의 기도, 성역한 장로(도봉교회 원로)의 성경봉독,

송병익 · 송석익 장로의 특송, 상임회장 김진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호 목사는 신 8:11, 14, 1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잊지말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민약대한민국이 공산화되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 반문하고, "그런 의미에서 끝난 전쟁이 아닌 6.25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는 67년 전의 비극을 잊어서는 안되며 정신차려 근심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는 기도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져 목사이여라 글로컬한 양육동신학 학장의 헌금기도, 김탁기 목사(상임총무)의 광고, 신신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특별기도회 및 격려사 시간은 박정은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6.25 노래 합창에 이어 '정치권의 안정과 새 정부 성공을 위해' 유병해 목사(유병해선교예배단장)가, '6.25 같은 민족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김동권 목사(함동경총총회 총회장)가, '북한 미사일 도발 방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김동원 목사(기장 증경총회장)가, '법집하는 조류제양과 가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최공열 장로(공동부회장)가, 4가지 제목을 놓고 합심기도를 장병찬 목사(상임부회장)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2017 기독교청소년 예술캠프 개최

호서대 연합신대원 · 고양일산YFC 공동주최

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원장 한미라 박사)과 사단법인 고양일산 YFC(이사장 김광문, 대표 오은규)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호서대학교 전인캠퍼스(연합신학대학원)에서 교회 예배팀과 찬양팀의 영성과 실력향상을 위한 기독교청소년 예술캠프(보컬, 건반, 댄스, 연기전공)를 진행한다.

예술캠프는 다른 여타의 청소년캠프와는 다르게 교회 안에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예배팀을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2박 3일 동안 함께 선착순 100명의 청소년들과 생활하며, 전문적인 레슨을 통하여 자신의 끼를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돕는 캠프이다.

예술적인 끼를 가진 청소년이 자신의 끼와 달란트를 확인하여 세상을 향한 헌신과 지성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청소년들이 가진 끼와 달란트의 개발을 위해 전문 강사들이 집중레슨을 통하여 돕는다. 또한 저녁집회마다 청소년 전분인 파워풀한 찬양팀과 특별강사들이 청소년들의 영적 변화를 위해 집회도 인도한다.

예술캠프의 모든 강사들은 특별히 자비함으로 2박 3일 동안 청소년들의 개인레슨을 위해서 수고한다. 강사로는 한미라(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원장), Jimmy Chae(히와이YWAM 간사), AKI(일본 니시이라이제일교포교회 담임 목사), 고은식(브릿지임팩트

공동대표 목사), 전은정(PR 복 대표), 전종혁(음악감독, 작곡가), 오선화(이동청소년분과장), 황영택(노래하는 멋진남자 황영택 저자), 오은규(고양일산YFC대표), 김민희(GIL Music대표), 양한규(실용음악강사), 마창욱(뮤지컬작곡가, 보컬코치), 김은경(실용음악 건반강사), 정재은(연극배우, 핫츠연합, 팝핀, 방송댄스 강사) 등이다.

그리고 캠프기간동안 청소년 개개인의 프로필사진을 제작하여 자신이 원하는 예술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캠프 마지막 날에는 기간 동안 레슨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지도자들과 친구, 부모님을 초대하여 콘서트도 진행한다.(010-3291-1091)

미드웨스트대학교 개교 31주년기념

글로벌 여성 리더십 국제포럼 및 학위수여식

올해로 개교 31주년을 맞이하는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 송 박사)는 2017년 학위수여식을 지난 6월 16일(금) 미조리 주 세인트루이스의 세계선교센터에서 한국과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는 졸업생들과 재학생 및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글로벌 여성 리더십 포럼 참석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특별히 글로벌 여성 리더십포럼에서는 미드웨스트 대학교로부터 명예 글로벌리더십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문위원이며, 국제복음주의협회(WEA) 유엔본부 대사를 역임하고, 현재 사무총장 고분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필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큰 힘을 쏟고 있는 Deborah Fikes이 주 강사로 나서서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공헌을 위한 글로벌 여성 리더들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Deborah Fikes는 이날 오후 졸업식에서 미드웨스트 대학교로부터 명예 글로벌리더십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졸업식 후 다음날인 17일(토)에는 미드웨스트대학교가 소속되어있는 국제복음주의협회 주관으로 미드웨스트대학교 및 국내외 유수한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일정 기간 훈련을 마치고, 목사 및 선교사 고시에 합격한 9명의 사역자들에게 대한목사안수식이 거행되었다.

미드웨스트대학교는 2000년에 미주한신대학교로서는 최초로 미국연방정부학력인증(CHEA)을 받았으며, 현재 연방 학력인증기관인 ABHE 및 ATS의 회원대학교로서 학사 학위로부터 박사학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학위가 한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서나 인증받을 수 있다. 현재 본교 및 워싱턴 캠퍼스에는 아시아, 중남미 등, 외국 유학생들이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에 공부하고 있으며, 미드웨스트대학교의 설립목적인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한 글로벌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02-3672-4516, www.midwestedu.)

순복음 새생명교회 장로장립·안수집사 임직식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조병희 목사)는 지난 6월 11일(주일) 오후 5시 순복음새생명교회(담임 박정옥 목사)에서 여효종 장로 장립과 김형우 안수집사 임직식을 가졌다.

먼저 드려진 1부 예배는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조은혜 목사(순복음빛님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한병점 목사(은혜외평화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임직식은 회장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집례로 서약과 안수위원 한병점 목사, 고영권 목사, 박용호 목사의 안수 및 장로 기운 척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약수례와 공포에 이어 여효종 장로에게 장립패를 수여했다.



이후 김형우 안수집사의 임직식은 박정옥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 담임)의 사회로 서약과 안수기도 후 약수례, 공포, 임직패수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일산제자광성교회 박유미 집사의 특송과 증경회장 고영권 목사

(순복음한세교회)의 축사, 증경회장 박용호 목사(오일순복음교회)의 권면, 여효종 장로의 답사, 한병점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임직식 후에는 모두 식사 장소로 옮겨 식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무더위 속 월례회 갖고 각 회무처리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조병희 목사)는 지난 6월 28일(월) 빛님교회에서 지방회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백영자 목사(순복음동교회)의 대표기도, 김광수 목사(순복음아비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갈6:14~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이라는 제목의 설교, 증경회장 고영권 목사(순복음한세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에서는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빛님교회에서 안내한 횃집으로 자리를 옮겨 점심식사를 하며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사

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방회 모든 순서를 마쳤다.

엘리아의 마음으로 단비 구하는 기도 드려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장영기 목사)는 지난 6

월 12일(월) 오후 7시 새샘물교회(담임 장지선 목사)에서 제24회 목회자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조은주 목사의 사회로 회장 장영기 목사의 기도에서 이어, 부회

장 최정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2부 기도회는 특별히 총회장 김양인 목사와 함께 총회를 위하여 또, 오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때에 엘리야의 심정으로 비 오기를 위해 기도하였다.

한편, 광주지방회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총회와 지방회를 비롯하여 목회자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올해로 시작한 지 2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모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다.

모든 기도가 끝난 후에는 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축도로 목회자기도회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새샘물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나눈 후 내일을 위하여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최남성 목사)는 지난 6월 29일(목) 오전 11시 순복음녹동교회(부회장 백영자 목사)에서 6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김명자 목사(순복음전교중앙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백영자 목사(순복음동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김갑신 목사(새여수 은혜와진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계 4:4-8 말씀을 본문으로 '천상의 예배'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며 "또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경건예언'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십계명에 기록되었다"고 전하고, "특히 목회자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길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서기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



회의)의 헌금기도와 신규회원 및 가입교회를 소개했으며 증경회장 최형택 목사(광양은혜외진리교회)의 축복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회장 최남성 목사의 진행으로 서기 유용근 목사의 기도, 김명자 목사의 총무보고, 재무회계보고 순으로 진행

됐으며 서기 유용근 목사의 보고와 기타 안건을 처리한 다음 회장 최남성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순복음녹동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모든 일정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두 마치고 귀가했다.

안태균 전도사 목사 안수 및 월례회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최은규 목사)는 지난 6월 5일(월) 오전 11시 동두천시 평화로 2440-3에 위치한 화목한교회(담임 김경순 목사) 본당에서 화목한교회 안태균 전도사의 목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임직예배는 총무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임형순 목사(순복음아베포교회)의 성경봉독, 김진태 목사(신한열매교회)의 특송, 최은규 목사(순복음선한목자교회)의 설교, 회계 최금자 목사(순복음온누리교회)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속 1:18-21 말씀을 본문으로 '대장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대장장이가 되어 어떠한 거친 원석도 잘 다듬어 하나님 나라에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그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임직지와 회원 모두를 위해 당부하고 축원했다. 이어서 임직식은 안수위원장 최은규 목사의 집례로 시작되어 임용제 목사(순복음신정리교회)의 권면, 김종연 목사(은혜교회)의 축사, 엄하석 목사(주성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태균 목사는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광고와 인사를 마쳤다. 임직식 후 진행된 6월 월례회는 지방회 후원 선교사인 김상봉 선교사(감보디아)의 감사인사와 함께 지방회 관련 기타 보고와 함께 회무를 처리하고 회원들 간의 위로와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엄기설 목사)는 지난 6월 19일(월) 야유회를 갖고 안면도 일대를 둘러보며 회원 간의 교제와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먼저 안면도 백사장항을 방문하여 신탄저점에서 회정식을 먹었는데, 그에 앞서 지방회장 엄기설 목사가 지방회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야유회 하루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친 심신의 피로를 맘껏 해소할 것을 권면하며 회원들을 축복하였다.

또한 증경지방회장 정운기 목사는 식사기도를 통해서 교단 총회와 지방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회원들은 백사장항 꽃게 다리를 도보로



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어서 안면도 휴양림을 방문하여서 소나무로 우거진 휴양림 숲속을 신책하면서 체력증진과 함께 회원 간의 단소를 통한 친목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며 돌아오는 길에는

공주시 유구읍에 들러 유구 정육점 식당에서 지방회장 엄기설 목사가 섬기는 한우고기를 맛있게 먹으면서 체력을 보강하였다.

대전으로 안전하게 복귀한 회원들은 하루 동안 야유회 일정을 통해서 피로를 말끔히 씻고 새로운 목회의 열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야유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신중임 전도사 목사 임직예배 드려

일산지방회

일산지방회(회장 박승호 목사)는 지난 6월 10일(토) 오전 11시 일산백영교회에서 신중임 전도사의 목사 임직 예배를 드리고, 목

사 임직자 신중임 목사의 앞날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다.

이날 1부 예배는 서기 양효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미자 목사(빛과사랑의교회)의 대표기도, 총무 조영란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박승호 목사(양의문교회)의 설

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행 2:36-4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령충만한 목회자'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신중임 목사 임직자를 축복하였다.

2부 목사임직식은 안수위원장 지방회장 박승호 목사의 집례로 증경회장 서영조 목사, 부회장 이재덕 목사, 재판위원장 이진우 목사가 안수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신중임 전도사에게 본 교단 헌법 37조 1항에 의거하여 서약을 받고, 임직기도, 성의자의 약수례, 공포, 안수증 및 임직패 증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3부 권면과 축사 시간에는 부회장 이재덕 목사, 재판위원장 이진우 목사의 권면과 여신호 목사(반석교회 담임)의 축사 후에 신중임 목사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증경회장 서영조 목사의 축도로 목사 임직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후 신중임 목사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애찬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사랑교회 설립예배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탁정신 목사)는 지난 6월 24일(토) 오전 11시 예수사랑교회(담임 예정희 전도사)의 설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오세준 목사의 인도로 부회장 이경진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탁정신 목사의 수 1:1-9 말씀을 본문으로 한 '당신의 내적언어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서기 유준수 목사의 헌금기도와 증경총회장 최광덕 목사의 권면, 직전회장 김갑수 목사의 격려사, 증경회장 한승수 목사의 축사, 증경회장 박행남 목사의 축도가 있었으며, 예배 후에는 참신한 모든 아이에 기념품을 전달하고 식사교제를 나누며 은혜 가운데 설립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정 부 응 목사

-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 예하성 전직 부총회장
- 대림펜셀교회 당회장
- 평창대림펜셀수양관 원장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성경 속 인물들을 따라 그들의 믿음과 선행 행위를 닮고자 노력하거나 기도도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행령을 뽑아야 한다면 바로 바나바를 택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 대사회는 개인적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타산적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기주의와 분리주의에 힘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과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바나바에 대해 알고 그의 믿음의 삶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오늘 이 시간 바나바의 인격과 온전한 신앙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바나바는 위로의 착한 사람입니다. (행 4:36; 11:24)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교회사역을 위해 자신의 발을 팔아 헌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나 이따나 부동산처럼 확실한 재산이 없었나 봅니다. 바나바도 자기의 발을 팔아 하나님께 헌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가난했으면서도 가난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었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36절) 이는 '격려의 아들' '원고'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로 인하여 권고받고 위로 받고 도움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없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더욱이 모세의 율법과 유전의 계율로 짓눌린 예루살렘의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위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초대 교회의 상황 아래에서 바나바의 눈과 마음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서 착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진정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마 25:21)하고 칭찬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증보지였습니다. (행 9:27)

교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교회의 반응은 두려움과 불신이었습니다.(행 9:28) 막힌 담이 두개였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 박해를 일으킨 주동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행 8:1). 이러한 사울이 교회에 들어오니 제자들하고 성도들이 두려움과 의심에 갖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과 사울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길에서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 쓰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 전한 것을 말하였습니다(행 9:27). 결국 바나바의 중보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한 가족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함께 살고 같이 교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화목의 삶을 바나바는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이 있는 후에 성경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

든히서가고" (행 9:31)라고 그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숨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평안해진 것입니다.

셋째, 바나바는 성령충만한 사람입니다. (행 11:24)

사도행전 11:24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심으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주를 믿는 신자의 기본적인 신앙 조건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귀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므로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충만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오직 주의 일이 부흥되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기 원했던 사람,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성령충만한 바나바였습니다.

넷째, 바나바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 11:22, 13:4)

바나바는 교회가 보내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일어난 구원의 큰 역사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로 하여금 안디옥에 가라고 하였을 때 바나바는 순종하였습니다. 집과 친척과 교회와 성도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약 300마일 ~450km) 아마도 생소할지 모르는 곳에 보냄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에서 보내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방 나라의 문화와 종교적 전통에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한국교회에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바울보다는 바나바일지 모릅니다. 모두가 지도자만 되고자 하는 이 시대에서 바나바와 같이 순종으로 섬기는 자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 바나바가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넘쳐 있는 한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성도님 일어나야 합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도 사님 힘을 내십시오!" 한마디를 통해서 바울 같은 일군을 만드는 바나바가 됩시다.

누구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보이는 이웃, 교육,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짐으로 열매를 맺는 작은 실천자 바나바가 되어 나아가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직 학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의지를 분명하게 쫓아야 하며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자신들 정권이 몰락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저들의 표현대로 아슬프고 천진난만한 태도로는 오히려 조롱이 되며 이용만 당할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변한 것이 없다. 무력남침과 평화를 가장하여 이를 적절하게 악용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3대를 세습하면서 바뀌거나 달라질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단호하면서도 분명한 대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이것만이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적으로부터의 도발과 침략을 예방하는 길이 된다. 아슬픈 평화나 대화 제의는 저들의 도발 의지만 높여주는 여러서는 전략이 됨을 알아야 한다.

동 정

가치협, 창립42주년 감사예배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가 창립 42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지협은 한국교회가 10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대국 2위라는 엄청난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42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이 국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정진해 왔다.

CTS-기독교대학교목회 협약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지난 6월 28일(수) 서울 노랑진 CTS멀티미디어 센터에서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회장 한인철)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춘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 기독교 교육사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목협 신임대표회장 선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지난 6월 20일(화)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강당에서 제11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성구 목사(예장고신, 시온성교회)를 새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성구 목사는 "한목협은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해 힘써 일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모 교수, 행복나눔인상 수상



나사렛대(총장 임승안)는 태권도학과 김정모(43)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2017 행복나눔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목) 서울 코리어나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 교수를 비롯해 나눔을 실천한 개인 43명과 민간단체 10 곳에 장관상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애걸’로 북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나?

북한이 7월 5일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했다. 북한은 오전에 발사하고, 오후에는 특별 중대발표하면서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미사일 발사는 평북 방현 일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북한은 대화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5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의 의도와 의지, 그리고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한/미 공조를 조롱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최대 6,000km 이상을 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노릴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은 올 들어서만 10번에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도 결코 예외는 없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한 지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데 그 도발성이 강하다.

또 지난달에는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 미사일 도발로 응답한 셈이다.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 대해서도 4일 악평을 늘어놓았는데 북한 노동당의 기구인 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미국 상전에게 찾아가 온갖 추태를 부렸다'라고 트집을 잡고, '남조선에서 골백년 정권이 교체되어도 숭미(崇美) 시대(事大)의 구태가 바뀌지 않으면 기대할 것도 없다'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많이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9일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전북 무주에

서 개최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스포츠로 남북관계의 물꼬가 틀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천진난만한 생각'이라고 쏘아붙였다.

대화를 싫고, 자신들을 돕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평화의 협상도 거부하고, 오직 무력 도발로써만 응답하는 북한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애걸'하는 모습이어야 하나?

북한은 어떤 말로도 평화에 응할 마음이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8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7. 8. 31(목)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7. 9. 07(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7. 9. 21(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7. 8. 31(목)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8. 2. 5(월)~6(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김양인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엄기설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세계적인인물사전 Who's Who에 등재 ①

미국 117년 역사, 세계적인 인명사전
Who's Who에 산업 지도자로 선정박진철 목사
강남지방회
주홍순복음교회 담임

미국에 117년 역사를 지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Who's Who에 산업 지도자로 선정되어 게재되었다. 이는 내가 담임목사, 교수, 선교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된 분야와는 꽤 거리가 먼데 왜 내가 실렸는지를 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인명사전에 등록된 일을 통해 성경 인물들의 이름과 관련한 구절들이 생각났다. 창세기 17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야기이며, 창세기 32장 24-31절에 야곱이 주의 천사와 밤새 씨름하여 한도 뼈가 부러질 때까지 때 달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사건이었다. 그리고 2017년 7월 초순경 필리핀 작심자 총재 리처드 J. 고든 상원의원께서 나에게 케이피원(KPONE: Korea & Philippine is One)이라는 회사상호를 지어주며 동행한 사람들이 필리핀 관련 사업을 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도 생각났다. 깊은 묵상 후에 얻은 대답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며 새로운 비전을 주고 계심을 알았다.

그 후에 내 삶을 돌아보았는데 절충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쳤던 일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공이란 거의 없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요한복음 9장 1-12절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말씀하셨다. 자신의 일을 이루겠다는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생각, 내 논리 그리고 내 철학에 따른 열심은



필리핀에서 작심자 총재와...

온전한 순종의 모조품이라 생각한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산제사로 드리는 헌신보다 더 중요함을 말한다.

나는 1952년 4월 28일 6.25가 한창인 그것도 보릿고개 때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땃골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난생처음으로 버스과 기차를 탔으니 그곳은 철저히 분명으로 부터 소외된 산골 동네였다. 나는 빈농의 5남 6녀의 아홉 번째로, 초등학교를 졸업해서는 평생 가난한 농사꾼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장차 쓰시고자 강력적으로 불러내 주셨다. 초등학교 1학년 어느 여름날, 금강 지류에서 물속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물속 황금 모래 바닥에 지란 수초들 사이에 노니 작은 물고기들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 그 분위기에 빠져들고 싶은 충동에 강으로 발을 들어 놓았다. 무릎까지만 잘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기에 달린 실체는 내 키보다 더 길었다. 당황하며 허우적거리는데 마침 같은 동네 형의 구조로 살 수 있었다. 일 년 후 여름에도, 수영 실력이 조금 늘어 배영으로 강가에서 이십 미터 중간 돌섬에 가다가 유속을 잘 몰라 엉뚱한 방향으로 떠내려가 죽게 되었는데 동일한 형의 구조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다. 그다음 해에도 연례행사처럼 수영을 할 때 수영 실력이 꽤 늘었다고 생각이 들어 강 건

너편을 보니 내 수영 실력으로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처럼 가까이 보였다. 수영으로 건너기로 마음먹고 도전을 했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고 힘이 빠져 아쩔 수 없이 살고자 하는 의지마저 포기하려는 순간 이번에도 동일한 형이 나타나서 간져 주고 인공호흡을 해주어 한참 후에 의식을 회복하고 살아났다.

초등학교 4학년 초 여름, 대구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따라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나는 처음으로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도착하는 순간부터 부모님이 큰 소리를 내면서 기간 내내 밤낮으로 곡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면 머지않아 내가 확실히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내가 단지 살아야겠다는 이유만으로 필사적인 탈출 작전이 펼쳐졌다. 어머니는 끝내 나를 포기하고 대구에 혼자 남겨둔 채로 고향으로 복귀하였고 한 달 후에는 전학 중까지 때려 보내주셨다. 나는 9번째 막내아들인데다가 제 위로 3명의 아들이 죽어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았다. 내가 고향에 계속 살았더라면 형제들을 많이 힘들게 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새에 비할 수는 없지만 3학년 때 물에 빠진 총격으로 약 1년간을 신경쇠약 병을 앓았다. 혼자 있을 때 가끔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와 있는 것으로 완전히 착각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나는 미국 북장로교 소속 제임스 E. 아담스 선교사가 1908년에 세운 계성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처음 알고 만나게 되었다. 본교 생활관에는 선교사와 영어선생님으로 헌신하시다가 후학들을 위해 자신의 시신을 기증한 분의 인체 골격이 벽에 걸려있다. 나는 보는 순간 졸도할 뻔했는데, 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신 생활 선생님은 그 내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곧바로 안도감을 되찾게 되었고, 향후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그분처럼 남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나는 멀리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체득하였고, 미흡하지만 죽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하게 되었다.

포커스 / 성경적 경제부흥 6

최정식 목사(순복음복원교회)



복이란 무엇인가?

복(福)이란 말은 흔히 ‘하주 좋은 운수’, ‘큰 행운과 오만한 행복’이란 뜻의 사전적 의미로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말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가난과 저주보다는 축복을 받은 행복한 삶을 기원한다. 그래서 기독교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복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전래적인 복의 개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사는 삶을 추구하는 현세적,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변에 사며니즘적 토속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고 우리의 전통문화나 무속에서는 고사, 무교에서 갖가지 가신(家神)을 신봉하는 것도 우리 민족의 심성이고 복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마다 정초가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하며, 가정에 사업장에 이 세상에서 소원성취를 위해 축복을 해준다.” 성직자 특히 목회자들은 축복을 통해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선포한다. 그러나 축복을 하는 사람도, 복을 받는 사람도, 복이 무엇이고,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묻는 사람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수도 없이 복에 대해 말하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하면서도 복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도 성도들이 예에게 복을 감구하지만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받을지를 몰라 세상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정초에 해맞이를 가고, 슬쩍슬쩍 점쟁이나 철학관을 찾는 것이 불분율이 되어있고, 심지어는 사업장에 복주머니나 복조리를 걸어놓고 복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복은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를 오복(五福)이라 하여 조상 제사를 통해 복의 성취를 소원한다. 오복은, 현세적 기복으로서, 오래 사는 장수(長壽)의 복, 재물이 많고 넉넉한 부(富)의 복,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한 강녕(康寧)의 복, 남을 돕고 베푸는 존경받고 덕을 쌓는 유효덕(敎好德)의 복, 전수를 다 누리고 죽을 때 편안 죽는 것을 고종명(考終命)이라 하여 이 다섯 가지를 오복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도 유교의 영향을 받아 원래 없던 삼장각을 지어 산신(山神)칠성신(七福)독성(獨聖)신을 모셔놓고 막연히 현세적인 복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신 일이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7-28)고 하셨다. 마 5:45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전 5:19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다. 이것을 일관 은총의 복이라고 한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복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중요한 문제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은 영적인 영혼의 구원과, 법사에 협동하는 물질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으며, 내세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복도 함께 약속하고 있다.

성경적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물질의 복으로서 택한 반고 구원받은 자만이 받아 누리라는 것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적인 측면으로 엡 1:3-5에 나타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상수훈의 복(마 5:3-13, 눅 6:20-26) 또한 인간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다. 땅의 복으로는 창 27:28-29 말씀을 비롯하여 성경에 2,350번이나 언급하신 부(Wealth)와 돈(Money)과 재물(Riches)을 들 수 있는데 ‘부’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디스려지는 것으로 성경에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는 것이고, 돈은 사람이 개발한 최고의 발명품으로 만물의 영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 재물은 부와 돈 사이에 있으며 만물의 영향하에 있어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섬길 수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진짜 복을 주신 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다(창 1:27, 28).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곁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잠 10:22)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다. 성도들이 먼저 복을 받고 잘해야 한다. 분명 한 것은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필리핀에서 엘블러스차량구입 모금을 위한 뮤지컬공연을 마치고 필리핀작심자 총재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http://agpgs.aogk.org>

2017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단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영합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항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모회 7차 정기 월례회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교단 전국사모연합회 제7차 정기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7년 7월 20일(목)
오후 1시(12시부터 점심식사)
| 장소 | 총회본부 302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TEL 02-2675-5181-3

| 참석대상 |
전국사모연합회 임원 및 각 지방회장 사모



고문 최해선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은혜와진리교회



증경회장 김양란
안디옥교회



증경회장 차경애
진주은평교회



증경회장 김영숙
순복음거제중앙교회



증경회장 신동진
청신교회



직전회장 차추련
안동성곡교회



회장 한정은
가평순복음교회



수석부회장 윤금자
목양제일교회



1부회장 한옥현
광양은혜와진리교회



2부회장 박경미
순복음승리교회



총무 김귀순
아세아순복음교회



부총무 신순철
순복음제일교회



서기 배은록
순복음소망교회



부서기 김세희
과산순복음교회



회계 신명희
부강순복음교회



부회계 김병희
은혜와진리교회



재무 김숙향
안성평강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한정은
총무 김귀순 (010-8973-4250)



Blueberry Farm 가비안농장은

E-mail: blueberry5659@gmail.com

주변 근거리에 제조업 공장 등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에 있습니다. 생과, 냉동 블루베리, 식초, 원액(효소) 등을 직접생산 판매합니다. 생산 판매하고 있는 잡제품을 유통마진 없이 착한 가격에 드립니다.

블루베리의 효능

- 1 항암효과 및 면역력 향상
- 안토시아닌 성분
- 2 심혈관 질환의 예방 및 개선
- 해로운 콜레스테롤 감소
- 3 시력회복 및 눈 건강 유지효과
- 비타민C의 250배 효과
- 4 피부미용에 좋은 효과
- 변비와 항염효능 탁월
- 5 두뇌 노화억제 및 기억능력 향상
- 산화방지 성분

설탕 대신 블루베리 100% 원액을 사용해서 영양을 동시에 챙기세요!

블루베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

몸 안의 세포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아침 '식전'이 가장 좋습니다.(하루 40알 정도 꾸준히)



가비안농장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리 209
새마을금고 3234-1000-95418 박혜영

100% 블루베리 원액(효소) 및 생과 활용법



주문상담 010-2442-5853, 010-3523-1457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196만원 2호 3호는 가족들의 선택임 >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장연 제67회 6.25 특별국가기도회

6.25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뜨겁게 기도
남북 평화통일과 국가번영, 국가안보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

사대한국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이하 예장연) 주최 제67회 6.25 특별국가기도회가 지난 6월 23일(금) 오전 11시 강화군 화도면 신덕 기도원에서 열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한의 극한 대립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6.25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깨어 기도하라!'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날 1부 예배는 예장연 상임회장 이강익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차득환 목사의 대표기도, 예장합동 광성 총무 배광제 목사의 성경봉독, 예장 평신총회 임원진과 예장합동전국연합총회 임원진의 찬양, 고문 김광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신 32:5-7 말씀을 본문으로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6.25 동란이후 폐해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

었으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복음국가가 되게 하시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됨을 감사드리다"고 전하고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국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용지물이 되도록,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김 목사는 또 튼튼한 믿음, 열리는 소망, 풍성한



사랑, 뜨거운 신앙, 꾸준한 신앙으로 복음을 확립하는 세력들을 몰아내고 국가의 안녕과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상임회장 김광호 목사는 축사를 낭송하며 마음의 각오를 다졌으며 이어 특별기도로 '나라와 통일을 위해', '국회와 정치지도자와 대통령을 위해', '한국 경제와 사회와 복지를 위해', '한국교회 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사)예장연과 가입교단들을 위해 최병남 목사, 황상호 목사, 김병선 목사, 하석수 목사, 오선미 목사, 김태지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고문 육옥수 목사와 상임회장 정승우 목사가 축사를 통해 6.25 67주년 국가기도회를 통해 더욱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했으며 상임회장 이성현 목사와 성경신학연구원 원로연구원 박용기 목사의 격려사가 계속되었다.

부회계 김마리 목사의 헌금찬양, 합동총연합총회장 강경선 목사의 헌금기도, 서기 손대영 목사의 6.25

기도회 결의문 낭독, 지분위원 황근옥 목사의 인도로 만세삼창 후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인사 및 광고, 고문 서재복 목사의 축도로 6.25 특별국가기도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광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뜻을 같이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원들은 일제 침탈과 6.25 전쟁으로 극도로 파멸해준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발전과 선교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임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진리의 말씀으로 나라를 가꾸어 갈 것을 결의했다.

회원들은 또 부정부패, 저출산, 이혼 및 자살률의 증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 합법화, 물질만능주의시대 도덕과 문화의 퇴폐 등을 심히 우려한다고 전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종교다원주의 배격,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불보며 남북 평화통일과 국가번영과 경제발전과 국가안보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결의를 다졌다.



남원임마누엘교회 지방회 가입예배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6월 2일(주일) 남원임마누엘교회에서 지방회 가입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최강욱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서기 이광호 목사(함라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회계 박종석 목사(샘엘전원교회)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김중호 목사(순정순복음교회)의 마 24:32-3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지금쯤 깨어있을 때이다'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지방회장 유관영 목사가 남원임마누엘교회의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북



지방회 가입선포를 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유

목사의 축도로 가입감사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탁정신 목사)는 지난 7월 4일(화) 오전 11시 순복음목장교회(담임 한승수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이경진 목사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박형남 목사의 요 4:23, 24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 뵈는 예배'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으며, 서기 육옥수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탁정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탁정신 목사의 진행으



로 육옥수 목사의 회원점명, 오세준 목사의 총무보고와 회계보고, 이경진 목사의 재무보고를 하고 이어 3부 안건토의 시간에는 일본

여행을 위한 준비에 대해 토의 후 강인덕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홈페이지: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7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정부와 한국교회에
긴급제언

장현일 원장 // 행정학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생명나무교회 목사



종교인(성직자)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교인(성직자) 과세를 내년엔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한승희 국제청장 후보자도 국회에서 시기를 정해주면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과세 대상자 규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 추측이 어렵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여만 명으로 추측된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실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에는 과세당국이나 종교단체 모두 종교인과세의 기준과 범위의 한정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상호 이해 그리고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시범 운영 후 실시해야 조세 저항 없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대선 때 각 당 대선후보들은 헌법에 명시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정교 분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2014년 국회토론회 사회와 국가적인 혼란과 국민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종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종교인 과세가 47년 만에 시행되기 때문에 종교의 고유한 역할과 사명을 간파한 채 만일 일반적으로 과세를 시행한다면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지난 2014년 국회토론회 개최를 비롯하여 꾸준히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정부와 교회에 제시해 왔다.

이제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과세 당국과 종교단체간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6월 19일 제5차 '종교인 과세대책을 위한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기독교사회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과파를 초월한 목회자들과 교회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불변의 가치이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다. 종교의 특성과 목회자 사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종교정책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국이 종교인 과세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대다수 종교인들의 입장임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2018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가 종교의 특성을 도외시한 가운데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과 잣대로 시행되는 과세정책이라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당국에 과세 시행시기의 유예를 포함한 세부과세기준 수립 및 납세절차 등 정책의 중점 고려사항에 대한 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종교간, 종단 및 종파간의 상이한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종교인 과세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조세 저항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종교인 과세 시행의 중요한 본질은 정부당국과 교계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나아가 각 교단의 헌법과 각 교회의 운영정관과 재무회계시행세칙 등 교회자치법규가 존중되는 가운데 과세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한정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회계나 세무관련 지식과 경험이 극히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는 각종 회계처리시스템이나 세무교육체계 등 관련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종교인과세 정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지를 설득하고 상호 협의의 통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시행에 앞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세방안을 준비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종교인 과세 시행의 주체인 정부 당국과 납세 당사자인 교회, 이 양자간에는 전체적으로 과세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절대 부족하고 미흡한 상황을 감안하여 2018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과세 시행시기를 추가로 유예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어떤 경우라도 종교인 과세를 빌미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세부조사나 세부시찰을 단호히 배격하며, 사회체계와 크게 다른 영적 구도집단인 교회가 종교인 과세에 연좌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교계대표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협의 장구를 개설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제라도 종교인 과세의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이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정부당국은 각 교단의 헌법과 교회자치법규를 존중하고 각 교단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지지하는 과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종교간, 종단 및 종파간 예산 수입 및 지출 항목 등의 처리방법이 상이하고 교회 안에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회의 예산 결산항목 중 '사제비'에 과세를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범위의 한정'과 '원천징수에 의한 납세' 절차의 수용을 정부당국에 건의한다.

이제 한국기독교교회는 사회적 공공성과 공공회성 강화를 통해 각 교회가 내부적으로 철저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립과 회계구조시스템 세무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재정운영이 적법성 정당한 절차, 공정성을 견지할 때만이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의 확보와 집행과 결산 등 투명한 재정행위로 종교인 과세를 정착시켜 국가 공동체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종교 분열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로목회자 후원을 위한 자선골프대회

취재일선의 교계기자들 적극 참석하며 후원 동참

원로목회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2017 크리스찬컵 교계기자 자선골프대회'가 최근 강원도 원주 센추리21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한국기독교언론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상임대표회장 김진옥 목사), 국제스포츠문화재단(대표회장 장성철목사)이 주최, 주관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사회 도기현 기자, 인사말 김진옥 목사, 대회설명 신연옥 기자, 선수선서 유영대 기자, 기금전달 이형근 목사(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연구원장), 대회선언 이주태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에 배는 사회 분영원 기자(한국교회공보), 대표기도 정대성 고분(국제스포츠문화재단), 설교 이형근 목사, 광고 오형국 기자(평생목회), 축도 장성철 목사(국제스포츠문화재단 대표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자선골프대회 개회예배에서 이형근 목사는 '언론인의 역할(이사야 50장 4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언론인의 힘은 막강하다. 취재된 기사를 통해 교회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여기에 모인 언론인들은 교회를 살리는 언론인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기독교언론재단의 표어에 나오는 '기독교언론이 바로서야 한국교회가 바로서고, 기독교언론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신다'는 말처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옥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좋은 기사와 취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교계 기자분들이 원로목회자들을 위해 자선골프대회에 참석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나하에 이어 열린 자선골프대회가 역사와 전통이 되기를 바란다. 교계기자 여러분의 오늘과 같은 지속적인 관심이 원로목회지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제23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성료

사모들 사명 회복하고 감당할 능력 얻어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옥 목사)와 목회자사모신분(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설동옥 목사)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CTS기독교TV, CBS, febc극동방송, 예정교회가 공동으로 후원한 '제23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가 은혜 중에 끝났다.

서울 예정교회(설동옥 목사)에서 진행된 이번 '제23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3박4일동안 개최했던 예

전과 달리 2박 3일을 기독교회는 일정으로 수백 명의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예정교회 본당을 가득 채운 사모들의 뜨거운 찬양소리와 열정의 기도는 참석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기에 충분했다.

선교되는 강사들의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까봐 열심히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모들로 세미나는 한층 더 뜨거움과 열정을 더해갔다.

이처럼 제23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목회자사모의 정체성을 깨닫게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목회자사모의 길을 갈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했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게 했고 부끄러움과 기도하는 사모들로 넘쳐났다.

'시명 앞으로 한 걸음 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이번 제23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참석한 모든 사모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키며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되었다.



기독교 탄압 속에 인도 복음화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

“21세기 들어 이 마을에 온 첫 외국인 김경미 선교사”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 '7000마라클 - 열방을 향하여'(연출 박봉성)는 바이파빠 마을에서 사역하는 김경미 선교사의 사연을 지난 6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방송했다.

김경미 선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인도에 대한 환상을 보고 홀로 이곳에 들어가 김경미 선교사는 2개월 동안 머물 집을 구하지 못 할 정도로 힌두교도들의 탄압을 받았다. 인도 외곽에 있는 난디알 바이파빠 마을에 들어와 보니 21세기 들어 이 마을에 온 첫 외국인 선교사였다.

김경미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는 인도 외곽에 위치한 바이파빠는 쉼페라타와 힌두인의 회교당이 있는 마을로 사람의 30%가 과부, 35%가 일교를 중독

자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최하빈민층이 사는 마을이다.

2014년 힌두교 극우파 모디가 정권을 잡자 시작된 기독교 탄압

모디 정권은 기독교 집회를 막는 등의 법령이 늘어나고 있고 이를 버티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선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년 전 크리스마스, 탤리에 있는 교회 종탑에 힌두교 깃발을 꽂는 등의 일이 일어났지만 이런 사태를 정부가 눈감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속적인 탄압으로 48년간 인도를 도왔던 NGO단체 컴패션이 인도에서의 활동을 중단하면서 컴패션의 도움으로 미션스쿨을 다니던 14만 5천여 명의 아이들은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김경미 선교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역시 컴패션이 지원하는 미션스쿨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상황에 처해있다.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면 아이들은 학업을 포기하거나 힌두교도로 개종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을 힌두교도로 보낼 수 없는 김경미 선교사! 아이들의 신앙을 아낀다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7000마라클-열방을 향하여>에서는, 열방을 향하여 온 땅 구석구석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인도 외곽에 있는 난디알 바이파빠에서 사역하는 김경미 선교사의 사연을 소개하고 복음의 새싹들을 위해 후원과 중보의 손길을 기다린다.

태백산금식기도원 여름산상대성회

강사

원장



진등용 목사
예하성 중경총회장
새소망교회
태백산금식기도원 설립자



이창재 목사
예하성 중경총회장
진부제교회



엄기설 목사
예하성 총무
은혜와안양교회



신재영 목사
예하성 부총회장
새진교회



장재순 전도사
태백산금식기도원 원장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

| 일 자 | 2017년 7월 24일(월) ~ 27일(목)

| 시 간 |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 대 상 |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

| 장 소 | 태백산 금식기도원(원장 장재순 전도사)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서학골

033)553-1900, 010)8406-0089

● 오시는길 : 광주원주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강원남로 → 태백문화원 지나 서학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태백산 금식기도원에서 여름산상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꼭!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CTS 나라사랑 특별 부흥집회 개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의 역사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장로) 주최 'CTS 나라사랑 특별부흥집회'가 지난 6월 22일(목) 저녁 옹진군 백령면 백령한사랑교회(담임목사 김주성)에서 전국에서 모인 100여 명의 CTS대한민국기도원장대 대표와 지역 교계 목회자 및 성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CTS 백령도 기도원장대'가 주관한 이날 특별부흥 집회는 김주성 목사(백령한사랑교회)의 사회로 이철 목사(전춘교회)의 환영사, 양희분 목사(아을교회)의 기도, 브라이언 박 목사의 부흥집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강사로 초청된 CTS콜링갯 진행자 브라이언 박 목사는 "통일의 하나님(에 4:4-6)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통일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신 분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성령님은 하나님을 만드시고, 마귀는 분열을 조장한다. 남이 아닌 내가 주님의 종이 돼 주권을 하나로 통치하도록 기도하면 세상에 어떤 일도 감당 못할 일이 없고, 사탄들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 됨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한 모든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됨으로 통치는 일에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고, 그걸 우리가 이뤄낼 때 대한민국은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목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리를 내어 선포하시길 바란다"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바로 '회개하라'이다. 부족하지만 회개하면서 이제까지 없었던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 오늘부터 하루에 1번 1분씩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다.

북한땅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 참여했다는 강명숙 권사(금천소망교회)는 "무엇보다 숨어서 예배드리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서 "부흥집회를 통해 우리가 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북한의 복음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주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평화의 땅 복음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교인들과 함께 기도원장대 일정에 참여한 이영숙 목사(협서비교교회)는 "순교의 현장은 이론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 와서 보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난 기도원장대 참여로 알게 됐다"면서 "백령도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 중화종교교회와 백령 기독교 역사의 현장을 와서 듣고 보면서 그동안의 믿음 생활을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이제는 정말로 순수한 신앙의 마음을 회복해, 전도에 합쳐 주님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통일기도운동과 교회연합 기도자료 발표

세기총, 국·내외 4,300교회에 자료 배포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 회장 황의춘 목사)는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해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있는 수요일에 배부 및 기도회를 통해, '국·내외 4,300교회가 복음의 뜻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분단된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통일기도와 교회연합을 이루는 기도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에 세기총은 6월 28일에 네 번째로 사용될 기도운동에 사용할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설교형식보다 세미나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번 자료는 황의춘 목사(현 트랜즈장로교회 담임목사)가 맡았으며 요한복음 17장 21절~23절의 말씀을 본분으로 '통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 목사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이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며 이것은 성경의 원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그 원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뜻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도 진리 안에서 옳은 것과 바른 것을 바로 판단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의 진리의 빛들이 세상을 밝히고 한국교회의 회개한 양심에 주님의 영감과 계시가 임하실 것이기에 그 진리의 양심들이 모여 강물같이 흐르게 될 때 이 강안이 진정 푸르른 통일 한국이 될 것임을 전했다.

세기총은 통일안 설교와 기도를 위해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www.kccw.kr)와 인터넷 신문 교회신문(www.cna-allgion.com)의 사이트를 검색해 '통일기도회'장에서 누구나 필요한 예배순서와 설교문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도 운동에 참여를 원하는 목회자나 교회 및 단체는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사무국(02-2232-6930/070-4278-5590~2)으로 연락하면 된다.

100주년기념교회 창립 12주년 특별강좌

7월 10-12일 윤형철·이은재·배덕만 교수 강사 선정

한국기독교교단100주년기념교회(담임목사 이재철)가 교회 창립 12주년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종교개혁의 환희와 고뇌'란 주제로 종교개혁 500주년 신앙대강좌를 7월 10일(월)부터 7월 12일(수)까지 진행한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탐구를 통해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이번 특별강좌와 강사에는 윤형철 교수(조지타운·개신대학원대학교), 이은재 교수(역사신학·감리교신학대학교), 배덕만 교수(기독교연구원·네헤미야가), 배덕만 교수는 윤형철 교수, 이은재 교수, 배덕만 교수, 이재근 교수(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7월 10일(월)에는 윤형철 교수가 '복음의 재발견!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가르침들 그 환희와 고뇌'란 제목으로 종교 개혁자들의 '자유', '이신칭의', '오직 성경' 등의 핵심적 주장을 역사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오늘날의 상황에서 평가한다. 첫날 폐널에는 이재근 겸임교수(웨스턴)와 이은재 교수(감신대)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7월 11일(화) 저녁 8시에는 이은재 교수가 '현제와 미래를 위한 종교개혁의 의미: 그 환희와 고뇌'란 제목으로 당시 종교개혁의 실천적 측면(성찬, 정치 등)과 소수파를 향한 도를 넘어선 필박에 대한 고찰, 그리고 오늘날의 달라진 상황에서의 관용 문제를 다룬다.

둘째날 폐널에는 이재근 교수와 배덕만 교수(기독교연구원·네헤미야가)가 나선다.

또한 7월 12일(수)에는 배덕만 교수가 '한국교회와 종교개혁 500주년 현실과 과제: 그 환희와 고뇌'란 제목으로 16세기 당시에 현안으로 대두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개혁 과제로 부상된 문제들을 교리와 실천 차원에서 검토한다.

셋째 날 폐널에는 이재근 교수와 윤형철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특별강좌 강사인 윤형철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서울대 법대와 개혁신학연구원을 졸업한 후 남아공 스텔렌보쉬에서 석사학위(Th.M)와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2012년부터 한영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봉직하다 2016년부터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관심 연구분야는 성경사역론, 성경권위론 삼위일체론과 공공신학 등이다.

또한 이은재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는 감리교신학대학교(BA.)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열매 맺는 성도의 다섯 가지 실천', '영건주의 신학과 신학자들', '성 프란체스코', '마르틴 루터', '인간이 되신 하나님' 등이 있다.

소외된 어르신들 위한 뷰티서비스

월드뷰티핸즈, 이·미용 등 장수사진 촬영

국제뷰티구조개발 NGO (사)월드뷰티핸즈(WBH, 이사장 정현일, 회장 최에스터)는 지난 6월 21일(수) 마포구청 광장 로비에서 마포구 성산동을 비롯한 어려운 마포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헤어 이·미용과 네일과 손관리 등 뷰티 서비스와 장수사진을 촬영하는 등 행복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뷰티서비스에는 최에스터 교수(한성대학교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교수)와 권오혁 교수(한성대 뷰티디자인학과) 김광희 교수, 임선희 교수(정화예술대 뷰티전공학과), 김연미 네일아티스트를 비롯 미용 분야 교수와 전문가 그리고 윤성재국장을 비롯 자원 봉사자와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 등 다양한 뷰티서비스를 통해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와 월드뷰티핸즈는 제5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하반기 사업을 승인했다. 7월에는 아프리카와 제주도 뷰티 서비스 8월에는 체코 뷰티 서비스를 비롯하여 연속사업으로 노숙인과 거동 불능한 독거노인 및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에게 뷰티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사)월드뷰티핸즈는 서울역 노숙자와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뷰티서비스 활동과 다문화 가족, 북한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기술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저개발국 주민을 대상

으로 이 사업을 확대시켜 진행하고 있다.

(사)월드뷰티핸즈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의 전문 교수와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뷰티구조개발 NGO로 정부의 1365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 뷰티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뷰티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생명을 타인과 나눈다는 것은 가장 고귀한 은혜

장기기증 서약예배로 성도 92명 장기기증 서약

지난 6월 마지막 주, 생명나눔을 약속하는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전국 5개 교회에서 드려졌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아현장로교회(담임목사 김우일)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사랑의장기기증 서약예배를 드렸다.

이날 아현장로교회에서는 본부 박진택 목사를 주일 설교자로 초청해 '이름다운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다. 박 목사는 아현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희생으로 다시 사는 생명, 나눔수록 더욱 커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가르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타인과 나눈다는 것은 가장 고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며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아현장로교회에는 한월 100원을 달성한 성도가 있을 만큼 생명나눔 활동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다. 그 결과 아현장로교회 성도 총 88명이 장기기증을 서약했다.

생명 나눔을 위한 교회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충북 청주시에서 위치한 북문교회(담임목사 이찬호)에서는 2007년에 이어 장기기증 서약 10주년을 기념해 두 번째로 장기기증 서약예배를 진행했다.

이찬호 담임목사는 8년 전 자신의 장모가 간이식을 받아 다시 살아난 경험을 알리며 "빛진 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랑의 결단을 통해 희망을 나눠주었으면 한다"며 장기기증 서약을 독려했다. 그 결과



북문교회 성도 중 총 88명이 서약하며 70%에 달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어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가능침례교회(담임목사 유현진)에서도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장기기증 서약예배를 진행하며 본부 김동엽 목사를 주일 설교자로 초청해 보다 뜻깊은 주일을 보냈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대표 김국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 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19,000원(택배비 포함)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국태

할렐루야!

그동안 성령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갈 때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대량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2017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5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주제: 'The Goal'
(부제: The Highest calling)"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 빌 3:14 -

♡♡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목사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를 위해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내 미자립교회 및 소규모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방회별로 팀을 이루어 연합하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 제5회 청소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올림-

- 일 정 : 2017년 7월 31일(월) ~ 8월 2일(수) 2박3일간
- 장 소 : 대림벤엘교회 평창수양관(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저길 21-4)
- 주 제 : 'The Goal' (빌 3:14)
(부제: The Highest calling)
- 프로그램 : 만남(OT) & 레크레이션, 경배와 찬양, 부흥회, 찬양콘서트, 특강, 공동체훈련, 장기자랑, 발표(간증)
- 대 상 : 본 교단 산하 전국 각 교회 중 · 고등부
- 등 록 비 : 70,000원(식대, 숙박비, 교재비 일체 포함)
- 접수방법 : 전화 신청 후 1인당 1만원 계좌송금(선착순 마감)
미자립교회는 상담 후 등록비 조정 가능함
- 접수 및 문의
 - ① 대림벤엘교회 교육부 02)845-5095, FAX. 02)845-5097
 - ② 이영옥 전도사 : 010-4206-4006
- 등록비입금 및 후원금 계좌 : 외환은행 191-18-47059-4(예금주 임형순)

고문

조용묵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여자교회 담임

대회장

김양인 목사
교단 총회장
목양제일교회 담임

진행 위원장

조선남 목사
대림벤엘교회 담임오세준 목사
참좋은교회 담임

진행 위원

이경진 목사
다사랑교회 담임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담임변원식 목사
창조교회 담임배윤희 목사
안디옥교회권승철 목사
남원중앙교회

준비위원

강수용 전도사(대림벤엘교회)
이영옥 전도사(대림벤엘교회)
고대운 전도사(순복음아멘교회)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후원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및 각 지방회, 대림벤엘교회 교육부

시사 포커스

한교연, 한국교회 분열 야기하는 한교총 출범 즉각 중단하라

제4의 연합단체는 한국교회를 또 분열시키는 행위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은 7월 1일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한교총(가칭)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한국교회 분열을 야기하는 한교총 출범 즉각 중단하라

(가칭)한국교회총연합회가 한국교회 제4의 연합단체로 공식 출범하려는 데 대하여 본회는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열망해 온 1천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성원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하고 독단적 행위로 간주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출범식을 가진 한교총은 교단장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교단의 현직 총회장들이 본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통합을 통해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든다는 목표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본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간의 통합작업이 상대측의 대표회장 직무장지 사태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또 다시 제4의 단체를 공식 출범시키겠다는 시도는 한국교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교총은 그동안 제4의 연합단체로 갈 것이라는 교계의 비판적 여론에 대해 “절대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부인하면서 본회와 한기총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 스스로가 기구회를 통한 세력화의 전면에 나서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혹여 지금 한기총이 대표회장 직무장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할 호기로 착각한 것은 아닌가.

지금 한교총에 참여하는 애장동화, 대신, 기성 등 주요 교단은 한기총의 불법 금권선거 및 이단 영입에 반대해 본회를 창립한 핵심 교단들이다. 또한

이들 교단은 본회 창립 이후 1~5회기까지 해당 교단의 중경총회장들이 차례로 대표회장으로 선출되며 사실상 본회를 이끌어 왔다. 또한, 본회는 창립 이후 단 한 차례도 금권선거와 이단문제 시비없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순수한 연합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마당에 본회 소속의 일부 교단들이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세운 기관을 허물고 새로운 연합단체를 만든다고 할 때 그 어떤 명분과 이유를 내세운다 한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한국교회가 용납하겠는가.

한교총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이 같은 독선적 행보의 저변에는 앞으로 몇 개 교단이 참여할지 알 수 없는 유동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버릇처럼 자신들이 한국교회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언해 온 데서 보듯이 허된 우월감과 오만이 깔려 있다. 그러나 교회 일치와 연합운동은 다수가 소수를 배려, 양보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일부 대교단이 좌지우지하는 구도로 연합기관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교회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으며, 일부 대교단이 현의 우위를 내세워 연합운동을 주도할 경우 한국교회 통합작업은 연합이 아닌 새로운 분열의 단초가 되고 말 것이다.

더구나 장로교 9월 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임기 말에 있는 교단장들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열망을 외면한 채 아무런 명분도 없는 새로운 연합단체 결성을 서두르는 것은 소속 교단에서 위임한 교단장의 권한을 크게 벗어난 행위로 한국교회 전체의 뜻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자칫 해당 교단의 역사와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하고 자중자애해 주기 바란다.

한국기독교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함으로 그동안 대사회 대정부적으로 입은 손해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건가? 그 점에 있어서는 본회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작금에 동성애 문제, 종교인 과세 등 잔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기존 기구의 통합을 제쳐놓고 한교총이라는 새로운 단체가 출범하는 것이 이미 대사회 대정부적으로 한국기독교의 또 다른 분열로 인식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며, 누가 뒷감당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금 한교총에 참여하고 있는 교단 중에는 그동안 보수 기독교와는 다른 길을 걸어온 교단도 있어 장로교 총회를 앞두고 벌써 이 문제로 교단 내부에서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교단적인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한교총 출범을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해당 교단에서뿐 아니라 보수 기독교계 전체가 주목하고 우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 한국교회연합은 한기총이 8월에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조직을 갖추는 즉시 양 기관 통합을 위한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만일 상대방의 여건이 불충하여 양 기관 통합을 위한 작업이 한국교회 전체가 바라는 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본 한국교회연합은 본회에 소속하지 않은 교단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 어떤 기득권에도 연연하지 않고, 한국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17. 7. 1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사설

무더운 여름, 성령으로 충만케 하자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이 돌아왔다. 이때를 맞이하여 모든 교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일을 짊어지고 갈 우리 청소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기 위해 더 없는 좋은 기회임을 절실히 깨닫고 알찬 일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요즘 세상을 보면 진정 청소년들이 어떻게 눈과 귀를 뜨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배울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나라의 중요 업무를 맡아 개혁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 대부분이 불법과 그릇된 행동으로 표본이 되기는커녕 불면, 부당의 대표주자들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매스컴에서는 살인, 성추행, 절도·강도, 사기·횡령 등의 뉴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진정 세상이 흉수라도 일어나서 한차례 씻겨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교회가 살아 있고 도덕 윤리가 살아 있어 그나마도 악이 억제되고 선이 이기므로 세상 질서가 유지되어 오는 것이다.

문제는 각 사람의 심령상태요 양심이라 할 것이다. 이 양심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깨끗이 유지될 수가 없다 하였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찌니.”(갈 5:16-26) 말씀하고 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만이 세상의 참 소망이 됨은 세상이 혼탁할수록 더욱 찬란한 진리로 사람들에게 빛난다.

요한 웨슬리가 1720년대에 영국 대 각성 운동을 벌일 때도, 1730년대 미국에서 요나단 에드워드가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일 때도, 1907년 길선주 목사가 평양 대부흥운동을 전개했을 때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통회 자복하고 더럽고 죄 많은 행실을 바꾸치고 새사람이 되는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쳤다고 한다. 이때 강도와 도적이 줄어들어 강강 안이 비어갔고 거리에는 술집이 모두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 모두가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닦진 결과였다. 이 평의 영적인 지도자들, 성령충만한 목회자들, 교회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들고일어나야 한다. 2017년 여름, 청소년 방학이 겹치는 7-8월에는 우리 모두 성령충만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한미 대사관을 포위하며 반미단체가 시위하는데 대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이 비인 협약을 들면서 이를 허용한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사드 배치 지연에 관해서는 미국 의회 앞에서 “배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전에 중국과 협의가 부족했다”고 발언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반미 기운의 고조에 힘입어 충남 천안시에서는 예산 7천만 원까지 배정하여 인근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기지에 대한 관광홍보행사를 하려다 “평등교육실천 천안 학부모회”, “천안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반미(反美) 단체들의 반발에 굴복하여 행사가 취소되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의정부시가 52년간 주둔하다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 24만 송별 콘서트를 열었지만 좌파 단체의 SNS 협박 댓글 공세로 가수들이 출연을 포기하는 불상사가 발생한 데 이어진 반미 책동들이다. 또한 기독교계와 많은 단체들이 반대하고 비판하는 속

에서조차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앞 광장에 동성애자 축제인 쿼어축제를 허가했다. 외설과 음란 행동으로 사회적 미풍양속과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시장 앞 광장에서 연출되게 되었다. 같은 날 대한문광장에서는 동성애 쿼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가 열려 이를 허가한 서울시에 대해 항의하고 동성애자들의 바른 성생활로의 회복을 촉구하고 나설 예정이다.

새 정부는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종교인(성직자)과 세를 실시하겠다는 교회들 흔들여 대고 있다. 종교인(성직자)이 탈세하겠다는 의도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였다. 교회는 이 같은 법을 준행하고 있다. 새 정부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유민주 국법 질서를 어지럽게 하지 말 것과 아울러 대한민국 자유민주 주권자들의 감시를 두려워할 것을 촉구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옥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6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아래－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6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시 : 2017년 7월 20일(목)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7월 13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회장 목사 김양인
총무 목사 엄기설

뮤지컬 ‘다 이루었다’를 보고나서



이상열 목사

- 수필문학으로 등단
- 한국크리스천문학기행회 이사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사)한국통일문인협회 부이사장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이사장
- (전)서울예술대학교 학장
- (전)바기오예술신학대학교 총장
- 로빈나 문화미용 대표
- 저서: 〈7독교와 예술〉, 〈연극예술론〉, 〈예술신교와 교육〉, 〈예배예술의 이론과 실제〉, 〈교회성장과 예술신교〉, 〈예술과 신학〉, 〈요한계시록 강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산상의 소리〉, 〈신학대 총장들의 칼럼집〉 외 다수

새벽부터 내리던 단비가 멈춘 오후에 구름을 벗어난 햇빛이 석촌호수 (동호·서호) 가득히 파고든다.

호수 둘레길을 돌며 걷기 운동을 하는 장소지만 오늘은 유독 상쾌하고 평화롭다. 벤치에 앉아 빛물에 씻긴 나무들, 서로 어울려 하늘거리는 풀잎과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정화된 기분이다.

나뭇잎에는 아직도 물방울이 보석이 되어 햇빛에 반짝거린다. 비가 내린 후라 옅은 물안개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불어오는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든다. 진한 녹색 잎은 어느 거룩한 손길에 되어 부르고 있는 듯했다.

석촌호수 여기저기를 바라보는 눈길은 앉아있는 벤치 앞 호수 물결에 머물렀다. 비가 그치고 따뜻한 햇살이 눈길풀을 무겁게 만든다. 갑자기 농동자가 초점을 잃어 몽동해지더니 물결 위에 겹쳐지는 강렬한 장면이 영화의 화면같이 떠오른다.

골고다 언덕 동산에 세워진 세 명의 죄인 중 한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비추는 라이트는 전신판을 클로즈업한다. 손과 발에는 로마 병장에게 못 박힌 자국이 선명하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흘러진 선혈이 흘러내린다. 언저 붙어있는 모습이 저절로 하다.

예수는 고통스러운 모습에서 평온한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 입을 연다.

“아버지여 부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아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쁜 숨을 몰아쉬며) 다 이루었다!”

예수는 고개를 떨구며 절명한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실망한 듯 예수 쪽을 바라보며 침을 뱉고 돌아선다.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은 긴장을 풀고 하산하려 할 때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암흑이 되고 땅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듯한 요란한 전동 반개 뇌성이 작열하고 천지가 진동하며 태풍이 휘몰아친다. 세상이 온통 거대한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져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절박한 음악이 빠르게 흐른다.

제사장 서기관 병사들 여인들은 갑피를 못잡고 허우적대는 모습과 비명을 지르며 사라진다. 이 때부터 무대 쪽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들려오는 갑박스런 음악소리에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체면이 걸려 있다 깨어난 사람처럼 몽롱했다. 비몽사몽간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방 작품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시대를 갔다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 전 친구와 함께 감상하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뮤지컬 ‘다 이루었다’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점점이 떨어지는 보혈을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문화예술선교와 기독교예술 예배예술행을 통한 선교와 현대 교회의 쇠신을 주장해온 나에게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6월 4일(주일) 뜻밖에 뮤지컬 ‘다 이루었다’ 공연 초청을 받고 고등학교 교직을 은퇴한 고향 친구와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을 통하여 아직까지 신앙이 없는 친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했다.

잡설 토틀호텔 지하광장에서 1시 30분에 만나 민속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끝내고 안양기는 버스에 올랐다. 미리 보내준 팸플릿을 보며 이 얘기가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종착지인 안양역에 도착했다.

은혜와진리교회 카이노스성전 공연장까지 도착했을 때 순목시계는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공연 30분 전이라 친구와 나는 웅장한 새 성전과 주위를 돌아보고 오니 입장이 시작되었다. 좌석은 뮤지컬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성도(관객)들은 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했다. 조용목

목사 사모님께서 우리 옆자리로 오셨다. 본 GNTC 뮤지컬 선교극단 단장이시며 ‘다 이루었다’의 희곡 저자인 사모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셨다.

오랜만에 뵙는지라 절박한 인사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 연출과정과 어려웠던 사연들을 주고받았다. 나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사모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기독교문화예술선교를 이끌어 갈 사명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다리는 동안 객석은 성도(관객)들로 만원사레를 이루었다. 지금부터 쓰는 글은 평론을 한 것이 아니다. 뮤지컬 전막 내용을 보면서 순서 없이 은혜가 된 것을 기록한 것임을 말해 두고자 한다.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흐르고, 잠시 후 전막 내용을 암시하는 음악으로 바뀌고 고조되면서 막이 서서히 오르고 조명은 빛을 발한다.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예수 탄생으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는 장면으로 뮤지컬은 시작이 되었다.

성도(관객)들은 조용해졌다. 웅장한 무대와 배우들의 연기 그 시절의 의상 음악효과 조명이 압도되어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기대를 갖게 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어린 시절을 갈릴리에서 성장하셨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요한에게 모여들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다. 예수께서도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청하니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할진대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라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하라하는지라.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와 외치며 말씀을 선포하셨다.

무대는 바뀌어 갈릴리 해변이 나오고 거기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게 된다. 밤이 맞도록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는 한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서며 베 오븐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다.

순종하여 그렇게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놀라서 예수님을 가까이 여기고 있을 때 나를 따라 오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무대 위에 세워진 고깃배와 뒤로는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어촌에 필요한 소품들과 배우들의 연기가 어울려 실감을 더했다. 이렇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삼고 더 나아가다가 그물을 잡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았다.

예수님께서는 그 외에도 빌립, 바돌로메, 마태, 야고보, 다대요, 시몬, 가롯 유다가 12제자로 삼으셨다. 뮤지컬가 진행될수록 고티한 성전 안은 정적을 깨고 주님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이 모든 장면을 무대를 통하여 배우들의 재연된 연기로 볼 수 있다는 게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한 표현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국복음을 전파하시었다. 백성 중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다.

배역마다 배우들의 개성이 살아있는 연기로 성도(관객)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소문이 온 누리에 퍼져 눈먼 자 각 종 병에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환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성도들은 숨죽이고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아멘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 모두가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고 전문연기자도 아닌

교회 성도들의 단합된 개성 있는 연기가 어찌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울 수가 있을까. 때로는 격동적이고 감동적인 연기를 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다. 연출자의 능력이 돋보이는 배우들의 무대 위 동작선과 대사 처리, 음악, 효과, 조명이 잘 어울렸다.

성전 안은 울음바다였다.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치며 아멘 소리가 성전 안을 채웠다. 성도(관객)들은 성령의 강한 임재로 은혜가 충만해 갔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로 구름떼같이 추종자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열광하던 호산나 소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열두제자 중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은 30라에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장면은 인간의 비애의 눈물을 짓게 한다.

아름답고 잘 세워진 무대 배우에서 십자가를 지

시기 전 갠제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심은 성도(관객)들의 두 손을 움켜쥐게 만들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파송된 로마 병사에게 잡혀 결박 당한 채 빌라도 앞에 조롱과 혹독한 신문을 받으셨다.

비웃음과 조롱 병사들의 휘두르는 채찍에 피가 된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예수의 모습은 처참한 모습에 성도(관객)들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로마인들은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동족인 유대인과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시기하여 죽어야 한다고 아난들이다.

임에 거품을 물고 무슨 철천지원수를 대하듯 광분하는 장면을 잘 보여준 연합되고 개성 있는 연기가 참으로 좋았다.

군중들은 ‘예수를 죽여라!’ ‘안 된다. 예수를 석방하라!’ ‘예수는 죄가 없다. 그는 구세주다!’

개수작 마라 예수는 죽어야 한다! 아우성이었다. 빌라도 재판에서는 서로 다른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난 연기가 옛 재판을 보는 듯했다. 빌라도의 근엄하고 위협적이면서도 대제사장 장로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갈등하며 고뇌하는 연기는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다.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어 달도록 판결을 내리는 빌라도 총독의 개성과 갈등이 엿보이는 연기는 성도(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빌라도는 백부장과 심부장의 호위를 받으며 무거운 걸음으로 퇴장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조명이 바뀌며 천지가 진동하고 총격적인 사운드가 빨리 흐른다. 무대는 칠월같이 어두움에 휩싸이고 무서운 결과를 예고하듯이 서곡이 진중하게 공포감을 준다. 수많은 혼령들의 아우성과 같은 끝없는 괴성들이 세상을 온통 굵어 찢어내고 있다. 연출자의 세심한 연출력과 능력이 엿보이는 장면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객석 통로를 이용해 등장하는 장면도 성도(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무대 위로 오른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위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의 처절한 모습이었다.

라이트는 예수님 전신판 클로즈업한다. 밀려오는 고통을 참으시는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 창에 찔린 옆구리 상처가 선명하다. 흘러진 보혈은 몸 군데 군데를 적시고 있다.

보혈을 다 흘리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입을 연다.

“아버지시여 부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아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숨을 몰아쉬며)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운명하신다.

조명은 꺼져 암흑이 되고 전동이 치고 반개와 뇌성이 하늘을 가르며 세찬 바람이 몰아친다. 공포스럽고 무서운 음악이 최고조가 되고 병사들, 제사장, 서기관, 여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하는데 아우성이었다.

중세시대 초연된 뮤지컬(예배극)도 제사장이 오늘날 내레이션을 같은 방식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이 잠시 흐른 뒤 이수리장이었던 것은 점점 사라지고 고요 속에 무대가 밝아지면서 십자가도 예수도 아무도 없는 가운데 베드로만 홀로 보인다.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 죄인을

버리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새 돌무덤에 넣어 큰 돌을 굴러 무덤을 텅텅 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부활할 것을 염려하여 파수꾼을 시켜 무덤을 지키게 한다. 3일이 되는 안식일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과 500여 명 앞에 나타나 보이셨다. 무대 위에는 어느새 운무가 깔리기 시작한다. 아름다움에 신비롭고 그윽한 노래가 흐른다. 날개를 단 천사들이 등장하여 환희의 춤을 추기 시작한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모두 놀라 사방을 둘러 보는 중에 천사들이 웅얼하는 무대 중앙으로 출연히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신다.

베드로: 주여 제가 주 앞에 오나이다.

예수: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리아: (예수를 바라보며) 오~주여

베드로: 주님!

여인: 주님!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 마리아, 여인들 등 제자들이 ‘오 주님! 시여’ 두 손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흐르는 눈물을 흘린다.

예수님은 동산 언덕 위로 올라 관중 앞으로 선다. 장엄하고 신비스런 음악이 흐르다가 더욱 고조되며 온 천지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시작한다. 예수님 팔아래는 스모그가 깔려 운무가 되니 신비감을 더해 준다. 제자들과 일부 관중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그 속으로 천사들의 출사위가 무대를 수놓고 밝은 빛이 객석을 눈부시게 쏟아내면서 그 빛처럼 예수님은 점점 사라져간다.

성도(관객)들의 박수 소리와 아멘 주님하고 입에서 입으로 흘러나오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에 비낀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끝날 줄을 모른다.

이 순간 몇 년날로 거슬러 중세시대의 뮤지컬가 끝난 텅빈 어느 성전에 앉아있는 기분이 든다. 그 당시 초연되었던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수난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교회지 도자들은 사람들의 절절이 사회의 약이 들어오고 우상숭배의 원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전에서 공연을 못하게 되자 야외 공터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차고 넘치고 결산지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판단이 잘못됨을 알고 성전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다.

설교(복음)와 예술이 도구가 되어 예배에 참여하므로 뮤지컬(예배극)로 불리게 되었다. 뮤지컬(예배극)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적극, 신비극, 도덕극으로 불리기도 했다. 다루는 소재는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사랑이었다. 그때의 연출자와 작가, 배우들은 최초의 문화 선교사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뮤지컬 ‘다 이루었다’를 보고 참으로 멋지고 은혜가 넘치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했다.

희곡을 손수 쓰시고 선교극단을 운영하시는 김양숙 사모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이 시대의 문화선교사라 말하고 싶다. 짜임새 있는 내용 전개와 갈등, 감정, 고뇌, 사랑이 있으면서 폭발적인 2개의 클라이막스를 두고 있다. 한편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절명하시는 모습에 울고 또 하시는 승천하시므로 소망이 되어 기쁨과 환희의 손뼉을 치며 희망을 준 작품이다.

김양숙 사모님의 능력과 문화선교사 단체 운영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연출자는 극본을 기초로 하여 연극을 지도하며 무대 위에 공연을 하는 사람이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유능한 연출자가 필요하다. 작품을 평가하는 예리한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작품을 보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산 경현으로 연출자의 판단능력이 있어야 한다.

뮤지컬 ‘다 이루었다’는 작고 큰 감정, 개성, 갈등, 사랑, 슬픔, 긴박감, 클라이막스를 잘 살린 멋지고 훌륭한 작품이었음을 말하고 싶다. 연기자들 역시 멋지고 아름다운 동작과 대사로 감동적인 은혜를 주었다.

예를 하나 들면 옛날 시골 비포장 길이었을 때 소가 끄는 달구지가 평평한 길에서는 작은 소리가 나고 돌이 많은 길을 갈 때는 텅텅대고, 길이 파인 곳을 지날 때는 빠르 텅텅 단다. 한 작품에 여러 배우들이 단합된 공동체를 이루어 배역에 따라 개성이 살아있는 동작과 대사가 필요한 것이다.

거기에 음악과 효과는 더 큰 맛을 느끼게 한다. 전 문적으로 연기를 하는 사람들도 아닐진대 모든 면에 몰이 흐르듯이 잘 소화하여 성도(관객)들의 마음을 은혜로 넘치게 하여 너무 고맙다.

이 작품 성공을 위해서 조용목 목사님을 비롯해 장로님들과 전 교인들이 기도로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국 각 교회 목사님들 장로와 성도가 이번 뮤지컬을 다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우리 모두는 험난한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는 환난과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김양숙 사모님의 작품 ‘다 이루었다’가 경각심이 되어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게 바란다.

한국의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주지적 만능)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수평적 만능)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적 삶을 성령 안에서 역동적으로 엮어 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 같은 두 가지 요소를 기능적으로 수용하고 행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즉 예배가 예배로서의 본래적인 성격보다는 의식으로서의 예배에 그쳐 버린다는가 선교가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보다는 예수령만 하는 식의 공허한 구호에만 머무는 울리는 행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선교의 대상인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문화의 시대에 그중 한 가지가 문화예술선교다. 문화는 신앙인의 삶이고 행위가 되어 표현이 될 때 그 시대의 문화가 되는 것이다.

예배와 선교는 그리스도의 삶이고 행위의 표현이기에 연극 예술인 것이다. 예술로 선교를 감당하는 사명자는 복음을 바탕에 두고 삶에 본질이 그리스도 주권하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 기독교인의 삶을 재현해 보이려는 행위의 표현으로 이를 예술선교라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술선교, 선교예술을 한다면서 하나님은 뒤로하고 자신의 작품이나 본인이 주목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본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오로지 주님이 주인공이 되고 예술가나 작품은 도구로만 사용돼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선교극을 보았지만, 이번 무대에 올려진 ‘다 이루었다’ 작품은 그 중 당면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다. 생명이 흐르는 거대한 강줄기와 같았다.

뮤지컬 ‘다 이루었다’가 성령하에 공연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더 좋은 작품으로 복음선교에 큰 열매를 맺기 바란다.

※뮤지컬공연은 1차(5/28~6/18), 2차(7/2~7/23), 3차(8/13~9/17)에 걸쳐 사전접수를 통해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며,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 공연차수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사전접수는 은혜와진리교회 각 성전 교구실을 통해 진행되며(문의: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031-443-3731~2), 복음전도를 위해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